

PartyCAT : 어쩌면 나와 닮은, 초대 개인전



2024.4.12-7.1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미래관 0층, 신관 1층





PartyCAT

어쩌면 나와 닮은



어떠한 감정 일어나 힘싸이다 보면 주변의 분위기가 그 색으로 물들기도 한다. 은색을 통해서도 당신은 빛이 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으며, 다양한 컬러를 사용함으로 세상엔 다채로운 감정들이 보편적으로 있기 마련임을 그려내었다. 슬프거나 우울한 주제는 최대한 만화적인 느낌으로 귀엽고, 밝게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은 하되, 피로하거나 우울해지지 않게끔 하였다. 반드시 한가지 색채만을 지닌 채 살아갈 필요는 없다. “나는 무조건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반복해서 말하기보단, PartyCAT 작가가 구현하는 다채로운 컬러처럼 닮고 싶은 기분을 환기해 보면 어떨까? 본인이 혹시라도 아픔이 있다면,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밝은 컬러가 있는 곳으로 한 발짝만 나아오면 어떨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헬렌앤제이 갤러리가 협력하여 오랜 치료로 우울해진 환자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콜라보를 진행하는 초대 개인전 ‘PartyCAT 어쩌면 나와 닮은’ 이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작품들을 감상함으로 기쁨과 심을 작게나마 경험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신관 1층



01



02

미래관 0층



03



04



05



0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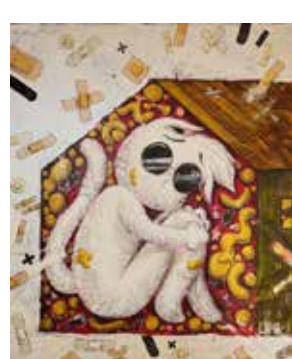
08



09



10



11



12



13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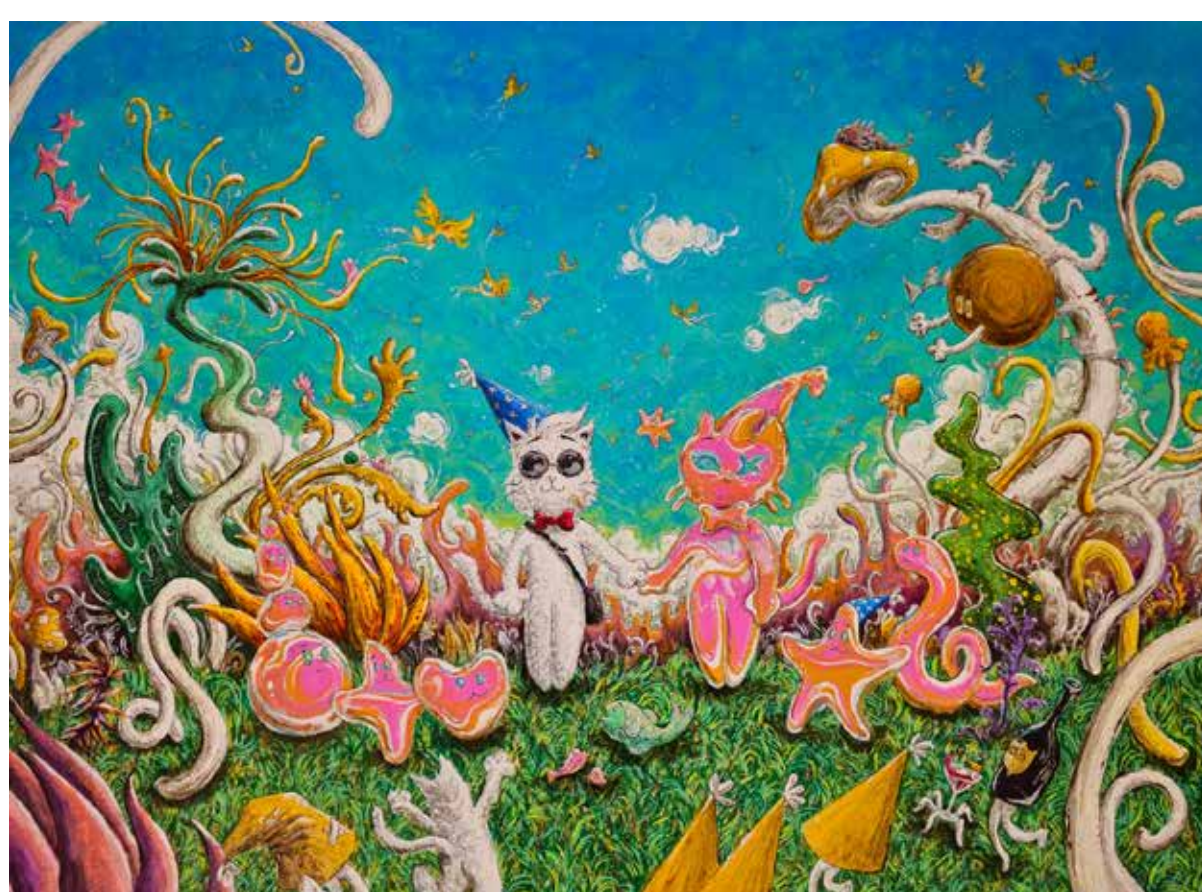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4



35



Wake UP

Acrylic, Pen on Canvas. 162 × 112 cm (100P) 2024.

캔버스의 프레임 안에서라도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외부 상황을 극복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외부 요인들은 컨트롤 할 수 없지만, 스스로의 마음 가짐은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마음 가짐이라도 밝게 가져보자!





OK

Acrylic, Pen on Canvas. 162 × 112 cm (100P) 2024.

어둠속에서 깨어나라! 라는 메시지를 담은 Wake Up 시리즈의 연작으로 이에 응답하듯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니가 밝아지기로 했다면 나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볼게"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은 마치 하얀 우주 속에 작은 행성들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다. 나의 우주가 알약, 주사기, 반창고들로 이루어져 있을지언정, 나는 기쁨이 되고자 한다.





PartyCAT 1

Acrylic, Pen on Canvas. 162 × 112 cm (100P) 2024.

상처를 감추고, 가리고 있기보단
조금씩 드러내는 것도, 괜찮아.

태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살아 있으면서, 가장 편안했던 자세가 아니었나?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잠들어 있던, 아득한 기억을 되돌려보자.

한 고등학생이 길 고양이를 대려다
담배불로 장난삼아 한쪽 눈을 지져버렸다.
후배였는데, 그건 잘못이라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을 해주지 못했다.
그 이후로 내 머리속에선 한쪽눈이 없는 고양이가 떠나질 않는다.
그 고양이가 내가 되어버린것 같기도하고...
그 이후로 애초에 아픔에 공감을 하게 되는 일은
잘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지 못하는것 같다.





PartyCAT 3

Acrylic, Pen on Canvas. 194 × 97 cm (120M) 2024.

캔버스의 프레임을 규격 안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사회의 교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것으로 이용 하였다.
그 안에서 순응하며, 자리를 잡은 파티캣의 모습은
흡사 사회에 적응 하려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





“이 정도 상처쯤은 반창고로 괜찮아..”

상처를 굳이 드러내거나, 반창고를 여기 저기 붙임으로서 상처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이는 마치 아팠던 일은 아예 없었던 일 처럼 철저히 감추려고 애쓰기보다 그 상처를 천천히,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며, 다 같이 치유해보자는 취지로 보여진다 어둡거나 밝음, 최대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은 채, 사람도 고양이도 아닌 비현실적인 그림이지만, 조금의 따스함과 귀여움을 더하여, 현실적으로 위로해보자는 작가의 의도를 나타낸다.



Pink Medicine

Acrylic, Pen on Canvas + Band-Aid. 60.5 × 73 cm (20F) 2023. 2024

약 먹을 시간이에요.
그나저나 마음이는 어디갔지? 요즘 잘 안보이네...
설마...





HATE HATE

Acrylic, Pen on Canvas + Band-Aid. 60.5 × 73 cm (20F) 2023. 2024.

상처가 점점 많아진다...

우주를 폭발 시켜 버리고 싶다. 그냥 다 꺼졌으면 좋겠다...

파티장도 날려버리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a lot of Me

Acrylic, Pen on Canvas. 60.5 × 73 cm. 2023. 2024.

수 많은 나.
한가지 감정만 가지고 살아갈 순 없다.
한가지 인생만 살고 싶지는 않다.





i have stickers

Acrylic, Pen on Canvas 60.5 × 73 cm (20F) 2024.

스티커 붙였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기분 좋은데?
키링도 2개나 달았다. 정말 별거 아닌데, 기분 좋다.
소소함이 주는 행복을 찾아보자.





COLOURED

Acrylic, Pen on Canvas + Band. 60.6 × 72.7 cm (20F) 2023.

"너도 나와 같은 색이어야한다고, 강요받는다."

때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조차 되지도 않는 사상과 규칙을 강요 당하기도 한다.

학창 시절, 왼손 잡이라는 이유 만으로, 받아쓰기 점수를 "0점"을 받기도 했으며,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유치하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 되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작가는 교정 당하지 않았으며, 작가에게 옳은 손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왼손 이었다.



“사냥꾼”



RADIOACTIVE

Acrylic, Pen on Canvas + Band-Aid. 60.6 × 72.7 cm (20F) 2023.

싫다고 발버둥을 치거나 말거나,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방사능처럼 모르는척 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해서, 나만 예외가 될 순 없다. 신 캐릭터 '깜순이' 원래는 순하고 하얀 친구였는데, 피폭 당해서 검고, 포악하게 바뀌었다는 설정. 눈이나 손끝에서 부정적인 에너지파를 발산한다. 주변에 상처받고, 어둠에 물든, 뺨뚫어진 친구들을 연상해보면 좋을듯하다. 동그란 경단 같은 아이들은 "사냥이"

おおきくなった。(커져버렸다.)

Acrylic, Pen on Canvas + Band-Aid. 50 × 61 cm. (12F) 2023. 2024

どうしたらいいの... 이걸 어찌면 좋을까...
 몸이 엄청 커져버렸네;; '나발부는 소년'의 연작.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오마주 이기도 하며
 술의 기운을 빌어 느껴지는 기분과 상상을 표현한 시리즈로
 마음은 성장하였지만, 행동은 그러하지 못한 자아의 괴리.
 마음으로는 자신감만 커진, 하지만 정작 표현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익살스럽게 구성했다. 일단 몸집이 커졌으니, 밖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Red Balloon

Acrylic, Pen on Canvas + Band-Aid.
45.7 × 53 cm (10F) 2023.

파티에 적응을 못하는 내향인,
상처의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 반창고를 붙였다.



Black Balloon

Acrylic, Pen on Canvas + Band-Aid.
45.7 × 53 cm. 2024.

술을 링거 삼아 우울한 마음을
회복하고 있다.
도망가는 또 다른 술병.
술병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나?





Gold Balloon

Acrylic, Pen on Canvas + Band-Aid.
45.7 × 53 cm. 2024.

황금색 풍선, 황금색 파티 모자.
그래봤자, 풍선이고, 종이 모자일뿐인데, 왜 그렇게도 간절히 남의 파티장에 초대받고 싶었을까? 잘 마시지도 못하는 칵테일 한잔 옆에 두면 상처 투성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교양 있어 보이려고 엘리자베스 카라도 두르고 왔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아.



Blue Balloon

Acrylic, Pen on Canvas + Band-Aid.
45.7 × 53 cm (10F) 2024.

파티 모자를 씌워 주려는걸까?
뺏어가려는걸까?
한 장의 그림이기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며, 평생 글을 써오던 친구가 사용하던 연필. 인사이드더들에게 뇌물로 바치려 했던 푸른 물고기. 어느덧 자라난 미움의 씨앗. '점박이'는 이미 얼룩덜룩하지만 그림에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듯 보인다.





“나를 찾아서”

태어난 곳은 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갈지는 스스로 정하고 싶었다. PartyCAT 작가는 살아지는대로 사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다는 작은 바람 정도는 간직하고 살아가려 했다. 아픈 상처와 반복되는 지친 일상에, 위로가 되는 여행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론 그 여행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인사이드가 되고자 남들이 펼치는 새빨간 환락, 어둑한 연기, 검은 술이 가득한 파티장이 아닌, 나만의 파티를 열어보자, 자연의 푸르른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자연이 존재함 그 자체 만으로 기쁨을 얻어보자고 하여, 화려한 색감에 약간의 상상력을 더하여 자연을 펼쳐내 보았다. 남들이 정한 기준에 억지로 맞춰가며 성공을 하고 비교 당하며 낮아지고 싶지 않았다. 나만의 기준, 나만의 성취로 가득한 자연에서 얻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



Let's GO!!!

Acrylic, Pen on Canvas. 116.8 × 72.7 cm (50M) 2023.

우울하고 이상한 파티장을 벗어나, 나만의 파티를 열어보자!!!

분홍색 반투명한 젤리 같은 친구들은 '마음이'들인데, 마음의 모양을 나타낸다.

사랑과 특별함을 더하여, 라는 의미로 하트모양, 더하기모양, 별모양의 친구들을 동반한 자아를 되치는 여정을 보여주려고 한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앞으로 한걸음씩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Above

Acrylic, Pen on Canvas. 53 × 72.7 cm (20P) 2024.

바람이 늘 어디선가 불어오는 장면들을 구현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구름이 움직이는것으로 바람을 느낄 수 있듯, 살랑이는 내 마음을 보고 있노라면, 나에게도 영혼이라는것이 분명 존재할거라고, 믿게 된다.





Hi, there

Acrylic, Pen on Canvas. 50 × 65 cm (15P) 2024.

안녕?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한마디 진심어린 반가운 인사를 건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걸까?

기쁜 마음으로,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낼 수 있다면, 참 좋을것 같았다.



The Breath of Life

Acrylic, Pen on Canvas. 100 × 73 cm (40P) 2024.

생명의 숨결,

마치 육신과 영혼, 이들이 만나 이루어 나가는 조화로운 세상을 그리고 싶었다.

미묘한 중앙정렬, 좌우 대칭이 주는 그림으로서의 안정감은 흡사 가족 사진 같은 느낌을 주려고 의도 하였다. 어둑한 파티장을 벗어나, 대자연에서 만난 친구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보자는 의지 또한 담겨져 있다.



Acrylic, Pen on Canvas.
20 × 20 × 5.5 cm. 2024.



Acrylic, Pen on Canvas.
10 × 10 × 5.5 cm. 2024.



Acrylic, Pen on Canvas + Band-Aid
36 × 48 cm (8F) 2023.



마음이들

수 많은 '마음'이들

인서트 컷처럼. 그림과 그림 간에 확장성과 서사의 연결감을 좀 더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자칫 어렵고, 지루할수도 있는, 반복되는 주제의식에서 잠시 벗어나서, 온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들을 들여다 보자.

'마음'의 모양은,

사랑할땐 하트로, 특별할땐 별 모양으로, 때론 뾰족하기도, 둥글기도 하다.

마음 또한 다치기도 하며, 계속 변하기도 한다.

아껴주도록 하자.



Refreshing

Acrylic, Pen on Canvas. 53 × 73 cm (20P) 2024.

오키나와의 바다 색을 늘 동경 해왔다. (미야코지마에서는 "케레마블루"라고도 한다.) 그 바다를 보기위해 매년 그곳으로 여행을 간다. 그 바다 색을 보면, 모든게 잊혀진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원수, 고민, 책임, 슬픔, 우울, 걱정거리 그 모든게 그 푸른 바다색을 보면, 사라짐을 느꼈다. 누구나 그렇듯 태어난 환경을 결정 할 순 없지만 최소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다 죽을지는 결정하고 싶었다.

오키나와에서 죽기로 결정했다. 오키나와 바다를 좋아지만, 작가 본인은 물 공포가 있어서 수영을 잘하진 못한다. 좋아하지만, 가까이 다가설수 없는 아이러니가, 동경하는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던것 같다. 때문에 작품 속에서 그 바다색을 하늘에 옮겨서 표현해 보았다. 타코이즈, 에메랄dbl루, 빛나는 녹색 계열의 컬러가 푸른색과 만나 연결이 될때 기쁨을 준다. 그 바다색을 조금이나마 구현했다는 상취감. 내 눈 앞에 그 바다가 있다는 느낌만으로, 복잡한 현실로부터,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





WAVE 01

Acrylic, Pen on Canvas. 91 × 65 cm (30P) 2023.

Oh Yeah! 여름엔 역시 바다.

물감을 최대한 두껍게 여러겹 덧발라서 파도의 질감을 시원하고 입체감 있게 표현했다.

모두 잊고, 신나게 즐겨보자.

작가는 자칫 무거워질수있는 주제의식을 풍자와 해학의 메시지로 전달하거나,

이와 반대로 아예 순수한 즐거움의 분출을 표현 하기도 한다.

이는 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짚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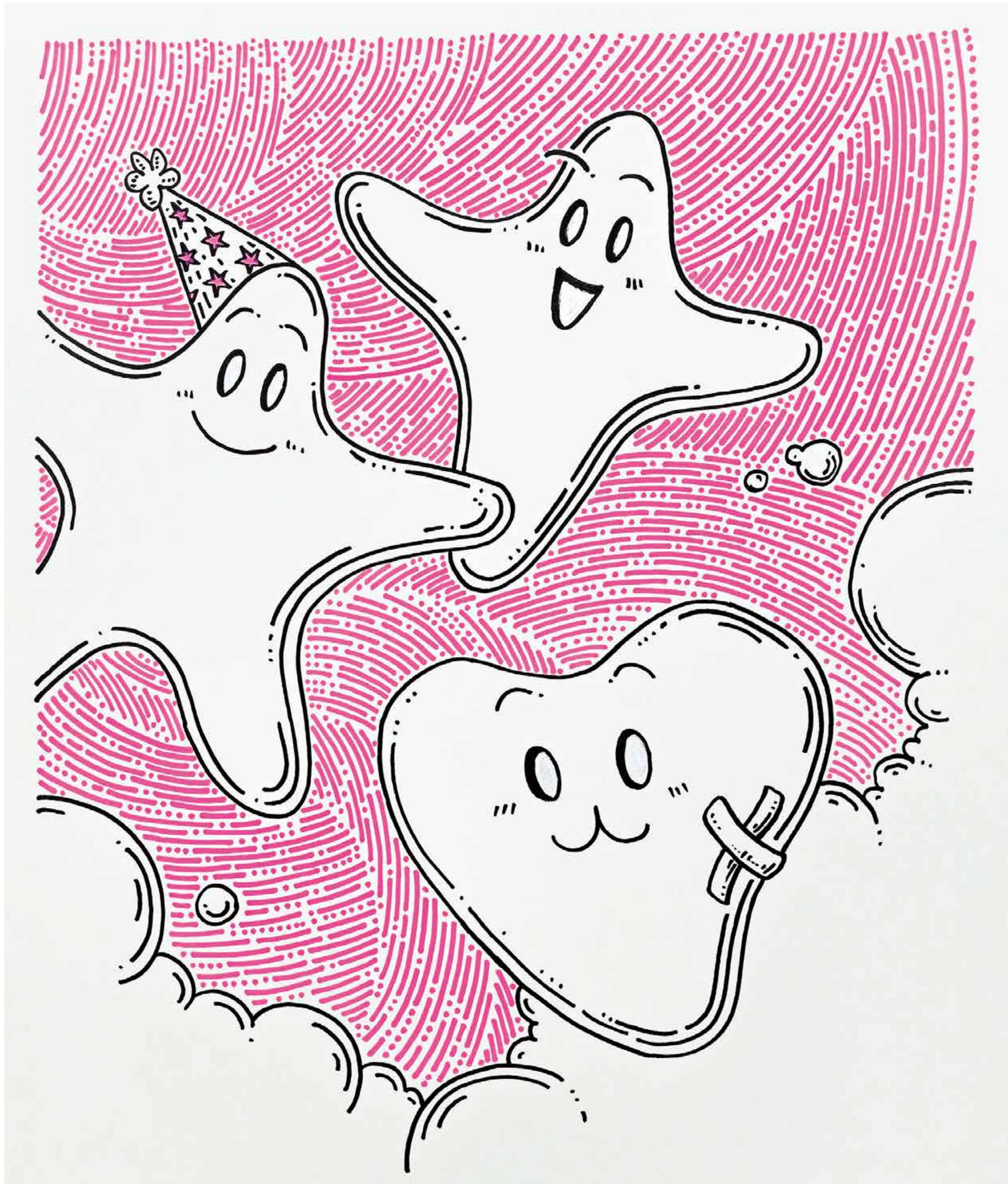


“색에는 힘이 있다.”

색에는 강한 힘이 있다. 이 색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색안경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색들과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색이 되기도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색일까?





사랑과 특별함을 더하여

Paint Marker on Paper. 40 × 50 cm. 9F. 2024

마음이 삼총사,
특별한 마음은 별 모양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하기 모양으로
사랑은 심장 모양으로





Green Wind

Paint Marker on Paper. 40 × 50 cm. 9F. 2024

어디선가 불어오는 초록색 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하는 작은 파티캣.





Blue Sky

Paint Marker on Paper. 40 × 50 cm. 9F. 2024

푸른 하늘, 행복한 마음이와 파티캣.



Give me 5 (silver)

Paint Marker on Paper.
49.5 × 72cm. 20M. 2023.

핸드폰만 들여다 보는 현대인을 표현하였다.
무슨 안좋은 소식이라도 있는걸까?
주식이라도 떨어진 걸까?
진정할 시간이 잠시 필요한 듯 하다.



Hi (silver)

Paint Marker on Paper.
49.5 × 72cm. 20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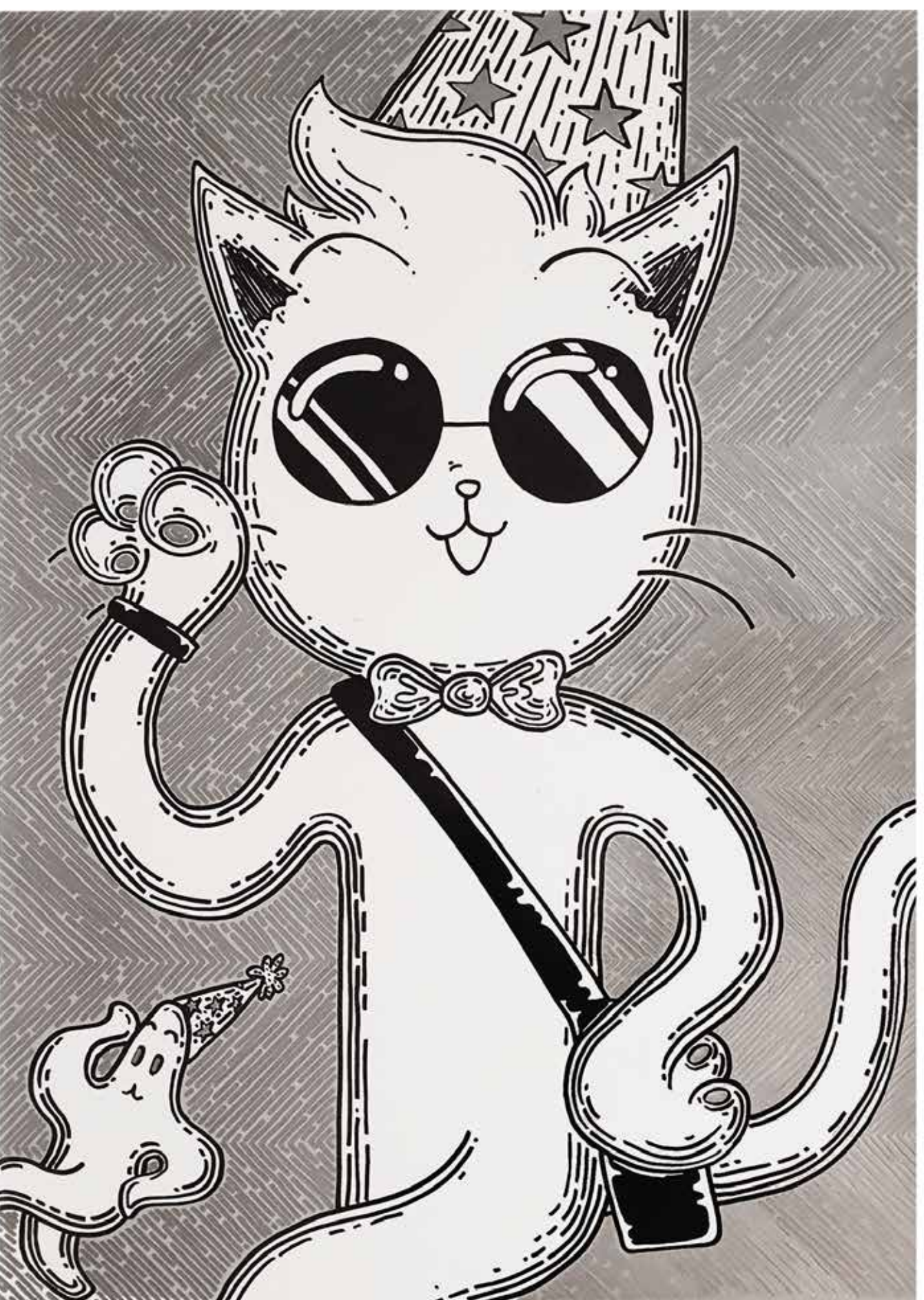
안녕?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해봅시다
당연한 것 같지만, 부끄러워서
인사 안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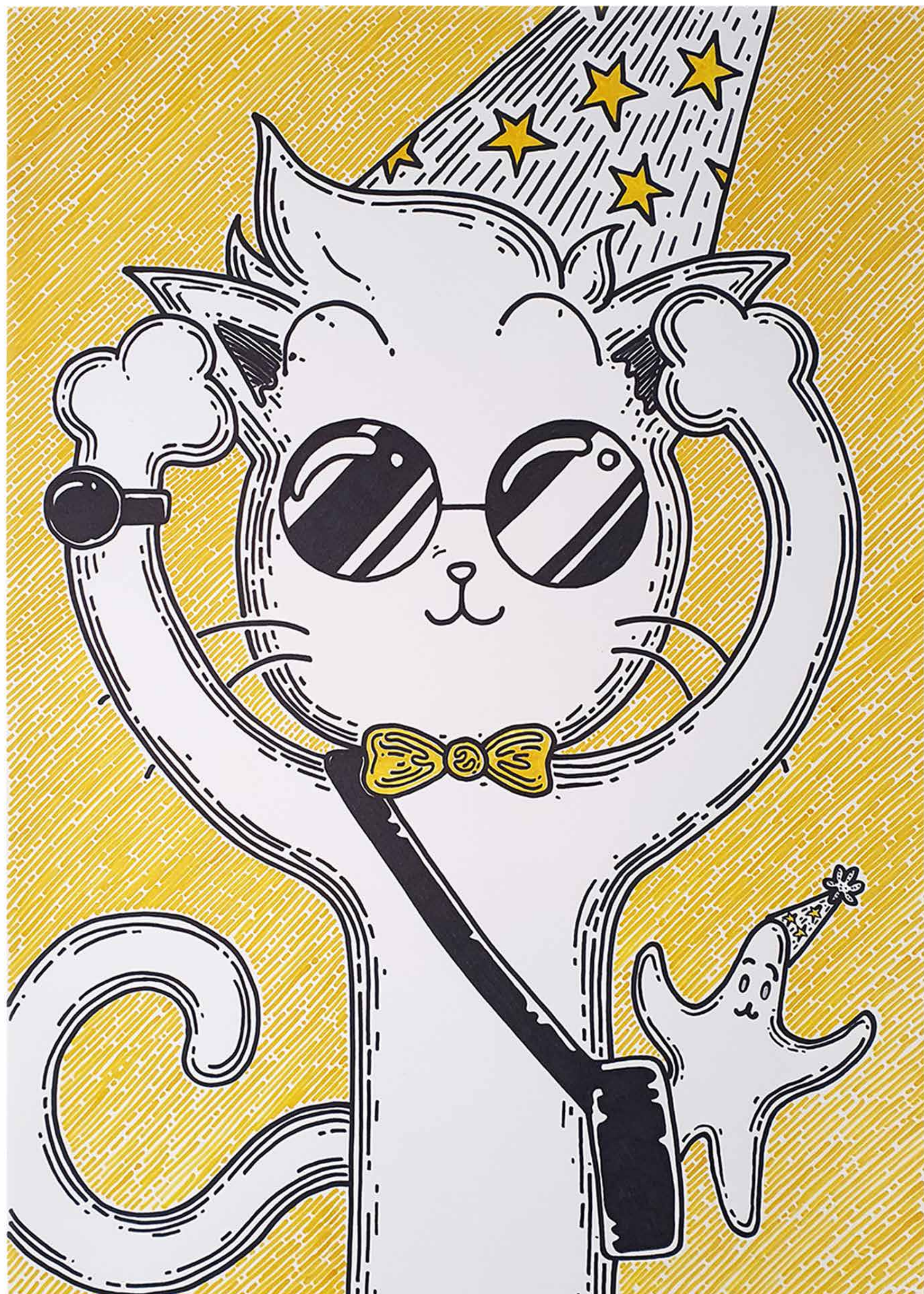


Meow (silver)

Paint Marker on Paper.
49.5 × 72cm. 20M. 2023.

아 맞다...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 였지.
야옹하고 포즈를 취해보자.





Yay (yellow)

Paint Marker on Paper. 49.5 × 72cm. 20M. 2023.

활짝 웃어봅시다. Yay~
너도 신나면, 나도 신난다~



Depressed (orange)

Paint Marker on Paper. 49.5 × 72cm. 20M. 2023.

때론 우울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마음이의 위로가 필요한 날이다.





Grass Green (green)

Paint Marker on Paper. 49.5 × 72cm. 20M. 2023.

자연의 푸르름이 주는 안정이야 말로, 최고의 휴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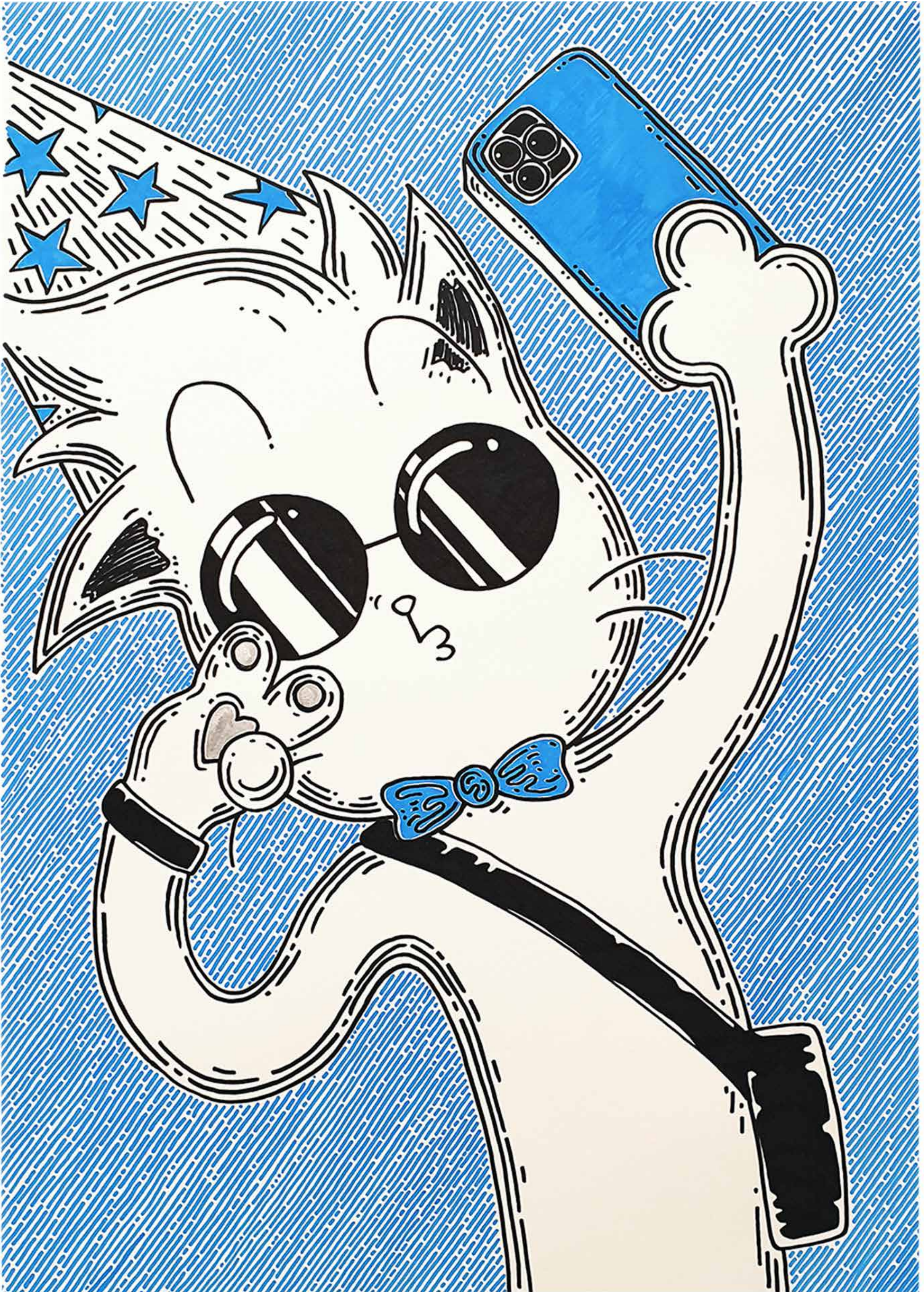


Selfie (purple)

Paint Marker on Paper. 49.5 × 72cm. 20M. 2023.

핸드폰을 빼놓고 현대인에 관한 담론을 할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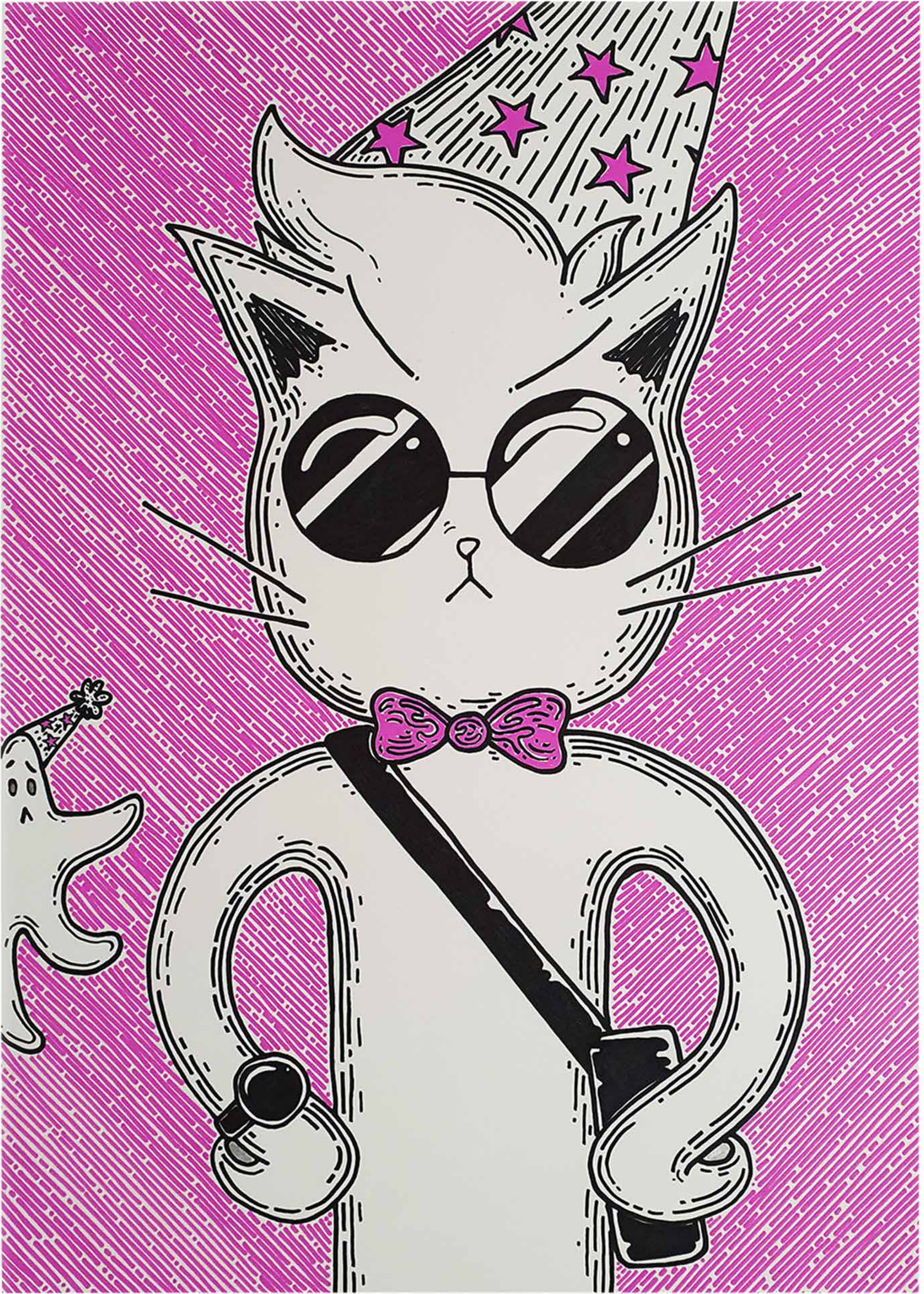


Selfie (blue)

Paint Marker on Paper. 49.5 × 72cm. 20M. 2023.

셀카 안 찍는 사람도 있나요?





Bah! (pink)

Paint Marker on Paper. 49.5 × 72cm. 20M. 2023.

날카롭고, 신경 곤두선 감정들은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든다.
마음에도 이럴땐, 어찌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불만이 있다면, 건강한 방식으로, 말로 잘 풀도록 합시다.



party CAT

CV	80	서울 출생
	88	Sear Rogers International School HK
	97	봉은중 졸업
	00	휘문고 졸업
	01	건국대학교 동양학과 자퇴
	05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1,2회 TV CM
	06	계원조형예술대학 멀티미디어과 졸업
	06	한국예술종합학교 무대미술과 합격
	06	최범석 General idea 웹사이트
	07	버블시스터즈 3집 및 싱글 앨범 아트디렉션
	07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5집 웹사이트
	07	브라운아이드소울 2집 웹사이트
	07	GRAPHIC#2 한국 대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15인 선정 인터뷰
	08	NEXON 카트라이더, G-star, Zera, 메이플스토리 등 다수 캠페인
	08	KT 시멘틱검색 서비스, U health care 등 프레젠테이션
	08	제일모직 여성의류 브랜드 conflictedtendency 웹사이트
	08	가수 김범수 6집 아트디렉션
	09	healing 전, 갤러리CHA "untitled.9" 전시
	10	KBS 드라마 "자유인 이회영" 드라마 타이틀 시퀀스 제작
	10	kiefer "untitled.9" M/V 제작, 감독 및 앨범
	11	CA conference 12th. 컨퍼런스 강연
	12	KBS2 "내 딸 서영이", OCN 뱀파이어검사 시즌2 등 드라마 타이틀
	13	tvN 인현왕후의 남자 등 드라마 타이틀
	15	CF 캔디크러쉬소다 박명수 편
	16	삼양 바이럴 캠페인
	17	DOOR - Electric Piano 앨범제작
	20	코오롱 re;code x nike 바이럴 등 다수 캠페인
	20	재즈 피아니스트 곽윤찬 다수 앨범 아트디렉션
	21	뮤지컬배우 박혜나 Jazz Diva M/V 제작, 감독 및 다수 앨범 아트디렉션
	24	현 PartyCAT 작가활동
Award	07	13th webby awards "General idea" official honoree
	07	대한민국광고대상 "General idea" 동상



파티켓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낯선 홍콩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며 건대 동양화과, 한예종 무대미술과 합격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하고 회사생활에도 정착하지 못하며, 지난 20년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작가의 이력을 보듯, 현대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내향인들의 애달픔과 상처 보듬기 위해 광대한 자연적 존재들을 만나 따스한 위로 받고 자아를 되찾아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힘든 이 세상은 뽀족해서 아프게 찌르기도 하지만, 밝아지고 싶다는 일념으로 작은 미소가 지어지는, 조금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늘 제공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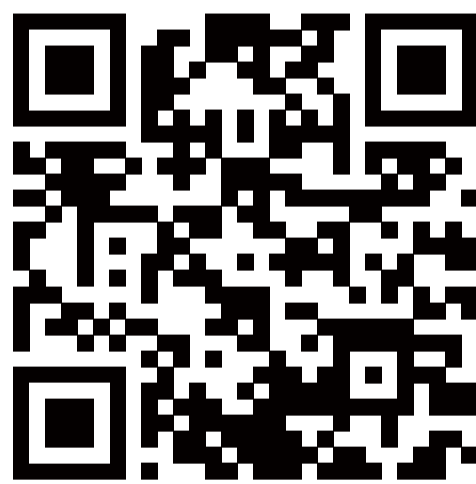


Artist PartyCAT
Executive Director 원종현
Catalogue Design 유나경
Planing 원종현
Curator 최주연
Funding Project Team 백다혜
Help 정은샘
이재연
Gallery HELENNJAE GALLERY OF SEOUL
고려대학교구로병원갤러리

Thanks to Scott Sho 회장님
정희자 대표님
사랑하는 부모님



@partycat555



PartyCAT : 어쩌면 나와 닮은, 초대 개인전



2024.4.12-7.1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미래관 0층, 신관 1층



고대구로병원 기금사업팀 02-2626-3366 헬렌앤제이 갤러리 02-722-0526



고려대학교구로병원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HELENNJAE
GALLERY OF SEOUL